

김선빈

9회말 투아웃
동점 투런포
기적의 역전승
타율 1위 질주



‘홀런 치는’ 9번 타자 ‘번트하는’ 외국인 선수, 틀을 깬 KIA 타이거즈의 ‘무한 야구’가 1위 질주를 이끈다.

KIA는 지난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연장 10회 승부 끝에 11-10 승리를 거두며 60승에 선착했다.

3연패에서 탈출하면서 화요일 13연승을 달린 KIA는 깜짝 뒤집기쇼를 펼치며 달라진 뒷심을 보여줬다. 팬들은 물론 사령탑 김기태 감독까지 깜짝 놀라게 한 결정적인 두 장면이 있었다.

이날 KIA는 2회말 SK 켈리를 상대로 대거 6점을 뽑아내며 일찍 승기를 잡는 것 같았다. 그러나 6-0으로 앞선 3회 임기영이 SK 최정에게 만루포를 허용했고, 6회 7-6에서는 김진우가 SK 로맥에게 역전 스리런을 맞았다.

그리고 이범호와 로맥이 솔로포를 주고 받으면서 8-10에서 KIA의 마지막 9회말 공격이 진행됐다.

나지완이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뒤 이범호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고 SK 마무리 박희수가 등판했다. 이어 대타 서동욱의 헛스윙 삼진이 나오면서 투 아웃, 타석에 9번 타자 김선빈이 섰다.

초구에 파울을 기록한 김선빈은 2구 역시 파울을 만들면서 투나성에 몰렸다. 남은 아웃카운트와 스트라이크는 하나, 그러나 볼을 하나 지켜본 김선빈이 4구째 직구를 힘차게 건어 올랐다. 그리고 공은 이내 좌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10-10이 됐다.

“홀런을 치겠다”고 마음먹고 타석에 선 9번 타자 김선빈의 배짱과 노림수가 만들어낸 극적인 장면이었다.

김선빈은 “초구 직구만 봤다. 초구 파울 이후 뒤에 (이)명기 형이 좋으니까 일단 출루를 하자 생각했다가 투나성이 되자 북북 북이라는 마음으로 홀런을 노렸다.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 못 했는데 기억에 남는 홀런이 될 것 같다”고 환하게 웃었다.

지켜보는 사람들도 깜짝 놀란 홀런. 이날 선발로서 제 몫을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던 임기영은 “초구에 선빈이 형이 스윙하는 것을 보고 홀런 치려고 마음먹었구나 생각했다. 놀라운 홀런이었다. 팀이 이겨서 좋다”고 말했다.

연장 10회에는 버나디나가 ‘깜짝’ 플레어로 경기장을 뒤집었다. 마무리 김윤동이 불넷 두 개로 맞은 1사 1-2루 위기를 넘긴 뒤 10회말 KIA의 공격이 시작됐다. 선두타자로 나온 김주찬의 타구가 우익선상을 타고 흐르면서 무사 2루, 4안타 1볼넷의 맹활약을 했던 버나디나가 다음 타자로 나섰다.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 궁금해하던 찰나 버나디나가 SK의 허를 찔렀다. 버나디나가 기습 번트로 1루 쪽으로 공을 보냈다. 투수 박희수가 공을 처리하겠



‘난 소 공’

세의 영웅이 아올린 홀런

다고 나섰지만 악송구가 나왔다. 그 사이 3루로 진루했던 김주찬이 홈까지 파고들면서 끝내기 점수가 만들어졌다.

김선빈의 홀런과 마찬가지로 KIA 벤치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버나디나는 “안타를 치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2루에 김주찬이 있었기 때문에 3루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팀에 기여할 생각으로 번트를 쳤다”고 끝내기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자신 보다는 팀을 생각한 버나디나의 희생과 재치가 만들어낸 명승부.

김기태 감독은 26일 “다들 (김선빈 홀런에) 놀라셨을 것이다. 적은 확률이지만 (이기기 위해) 홀런을 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하다. 버나디나도 공격 사인을 냈는데 알아서 좋은 플레이를 해줬다. 우리 선수들 대단하다. 감독으로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생각하는 야구, 도전 정신을 강조해온 김 감독과 두려움 없이 팀을 위해 움직인 선수들이 합작한 2017시즌 또 다른 명승부였다.

김선빈은 “어린 시절에 ‘난 소 공’을 치는 게 좋아서 야구를 시작했다. 야구를 하면서 ‘난 소 공’을 치는 게 좋아서 야구를 시작했다. 야구를 하면서 ‘난 소 공’을 치는 게 좋아서 야구를 시작했다.”

김선빈은 “어린 시절에 ‘난 소 공’을 치는 게 좋아서 야구를 시작했다. 야구를 하면서 ‘난 소 공’을 치는 게 좋아서 야구를 시작했다.”

김기태 감독은 26일 “다들 (김선빈 홀런에) 놀라셨을 것이다. 적은 확률이지만 (이기기 위해) 홀런을 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하다. 버나디나도 공격 사인을 냈는데 알아서 좋은 플레이를 해줬다. 우리 선수들 대단하다. 감독으로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생각하는 야구, 도전 정신을 강조해온 김 감독과 두려움 없이 팀을 위해 움직인 선수들이 합작한 2017시즌 또 다른 명승부였다.

김선빈은 “어린 시절에 ‘난 소 공’을 치는 게 좋아서 야구를 시작했다. 야구를 하면서 ‘난 소 공’을 치는 게 좋아서 야구를 시작했다.”

김선빈은 “어린 시절에 ‘난 소 공’을 치는 게 좋아서 야구를 시작했다. 야구를 하면서 ‘난 소 공’을 치는 게 좋아서 야구를 시작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독

▲내가 제일 못 처요

7번 타자 이범호의 한탄(?)이었다. 26일 SK와의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훈련. 이범호가 타격 훈련이 끝나 뒤 전날 경기에서 끝내기 특점의 주인공이 된 김주찬과 나란히 덕아웃을 들어왔다. 전날 좋은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범호는 “내가 제일 못 처요. 팀에서”라고 웃으면서 라커룸으로 향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KIA에서는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 중 3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김선빈(0.384), 최형우(0.367), 이명기(0.345), 안치홍(0.339), 버나디나(0.322), 나지완(0.309) 등 6명. 이범호의 타율은 0.278로 이에 미치지 못한

이범호의 한탄 “팀에서 내가 제일 못 처” 만루포 맞은 임기영 “맞으면서 커야죠”

지만 전날 추격의 불씨를 살린 시즌 12호포를 쏘아 올리는 등 중요한 순간에 한방을 선보이고 있다.

▲내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만족’ 없는 버나디나의 새로운 하루다. 버나디나는 25일 경기에서 4안타 1볼넷 그리고 상대의 끝내기 실책을 부르는 기습 번트까지 선보이면서 만점 활약을 했다. 버나디나는 “최근 컨디션도 좋고 긍정적이다”면서도 “내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다”며 만족 없는 자신의 야구에 관해 이야기했다.

▲어제 선발이 누구였죠? 기억을 잊은? 기억을 잊고 싶은 임기영이다. 올 시즌 KIA 마운드의 ‘샷별’로 떠오른 임기영은 25일 SK와의 경기에서 4이닝 9피안타(1피홈런) 3사구 1탈삼진 6실점이라는 올 시즌 최악의 피장을 했다. 다행히 팀이 연장 승부 끝에 11-10으로 이기면서 한숨 돌릴 수 있었던 임기영은 전날 경기에 대한 질문을 받아 “어제 선발이 누구였죠”라며 씩씩하게 웃었다. 임기영은 “뭔가 붐 뜬 느낌이었다. 나중에 경기를 복기해야 하는데 생각이 안 난다. 어제 경

기 끝나고 유니폼, 모자, 스카이크 다 버렸다(웃음). 새 마음으로 새 출발 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맞으면서 커야죠 임기영을 키우는 SK 최정이다. 25일 선발로 나선 임기영은 6-0으로 앞선 3회 최정에게 만루홈런을 맞으면서 흔들렸다. 임기영은 결국 4회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맞으면서 커야한다”며 아쉬워한 임기영과 그를 키우는 최정이다. 올 시즌 9번의 만루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최정은 전날 시즌 첫 만루홈런을 기록했다. 그리고 프로 데뷔 첫 만루홈런 상대 역시 임기영이었다. 임기영이 한화 시절이던 2013년의 이야기다. 임기영은 “어린 시절에 (최정에게) 만루홈런을 맞았는데, 프로에서 처음 맞은 홀런이었다”고 고백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멀리뛰기 김덕현 런던행 티켓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확정

국내 멀리뛰기 1인자 김덕현(광주시청)이 런던행 티켓을 따냈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오는 8월 4일부터 10일 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김덕현이 출전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김덕현의 합류로 광주시청 육상팀에서는 남자100m에 김국영(26), 여자 허들100m의 정혜림(30)을 포함해 3명의 선수가 런던대회 출전자격을 얻었다.

김덕현은 지난 5일 고성에서 열린 2017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멀리뛰기에서 세계육상선수권 기준기록 8m15에 4cm 부족한 8m11을 기록해 출전이 불투명했다.

세계적으로 도약종목 기준기록을 통과한 선수들은 미국 8명, 중국 5명, 남아공에 4명이 있는 등 이미 출전 자격을 얻어낸 선수들이 많은 상황이다.

김덕현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각 국에 3명씩만 대회가 참가할 수 있는 규정과 기준기록을 통과한 선수 외에도 세계랭킹 32위까지의 출전이 허용되어 출전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2017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07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김국영과 지난 8월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00m 허들 결승에서 1위를 한 정혜림을 포함해 광주의 육상선수 3명이 런던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광주시청 육상팀 심재용 감독은 “김국영과 정혜림을 비롯해 김덕현까지 런던대회를 갈 수 있어 무척 기쁘고 다행이다. 코칭스태프들도 선수들이 본 대회에서 제 기량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오는 29일 런던현지로 출국해 금빛도약을 꿈꾼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dakong’ 전복 322개 때려 43골 넣었다

K리그 클래식 전반기 결산

광주 송승민·김민혁 ‘강철체력’

서울 추가시간에 5개 ‘극장골’

광주 FC의 송승민과 김민혁이 ‘강철체력’의 선수로 2017 K리그 전반기에 이름을 남겼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17 K리그 클래식 전반기 결산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즌 광주의 ‘캡틴’ 송승민과 ‘중원의 사령관’ 김민혁을 비롯한 이근호(강원), 주세종(서울), 오르사(울산), 김신욱(전북), 심동운(포항), 맨디(제주) 등 8명이 전반기에 출전했다. 이 중에서도 강원의 이근호는 23경기에서 212분을 뛰며 단 76분만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뛰었다.

1위로 전반기를 마감한 전북은 ‘dakong(닥치고 공격)’의 팀답게 23경기에서 총 322회(유호 171회)의 슈팅을 날리며 최다 슈팅 클럽에 이름을 남겼다. 전북은 이 중 43개를 득점으로 연결했다. 울산이 289회(유호 150회)로 뒤를 이었다.

최다 슈팅을 기록한 선수는 울산의 오르사(80회)이며, 수원의 조나탄(79회)과 포항의 양동현(67회)이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조나탄은 K리그 최초 4경기 연속 멀티골 기록까지 작성하면서 ‘영양만점’의 슈팅을 남겼다. 조나탄은 울산 타 휴식기가 끝난 뒤 8월 2일 울산을 상

대로 기록 경신에 나선다.

서울의 대안은 지난 19일 인천전에서 여섯 번째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K리그 최다 타이 기록과 나란히 했고, K리그 통산 최고령 선수 헤트트릭(35세 11개월 22일) 선수가 됐다. 대안은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도 성공하며, 이 부분 최다기록도 작성했다.

짜릿한 승부도 많았다. 전반기에 나온 371골 중 후반 40분 이후에 터진 ‘극장골’이 전체 12.7%인 47골로 집계됐다.

서울과 포항 스틸러스, 제주, 수원이 6골씩을 넣었다. 특히 서울은 추가시간에만 5골을 넣어 ‘서울극장’ 명성을 이어갔다.

‘원반의 달인’ 임기훈(수원)은 전반기에 7개의 도움을 추가하며 72도움으로 K리그 원클럽 소속 최다 도움 기록 주인공이 됐다. 기존 기록은 신태용 현 국가대표팀 감독의 68개다. 또한 염기훈은 95도움으로 K리그 역대 도움 기록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서울에서 뛰었던 몰리나(69개)다. 홍미로온 기록들도 눈에 띈다.

전북 로페즈가 지난 16일 상주전에서 경기 시작 18초 만에 골을 넣으면서 K리그 클래식 역대 최단시간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전북의 이동국은 최고령(38세 2개월 24일) 득점 기록을 썼고, 수원의 유주안은 이번 시즌 최연소 득점(18세 8개월 24일)을 작성했다. 서울의 고요한(170cm)은 이번 시즌 최단신 헤딩골 주인공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승하러 갑니다” 2017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제2그룹 결선에 진출한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의 김명영이 2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결선 개최지인 체코로 출국하며 팬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연합뉴스

목표는 그랑프리 2그룹 우승... 2경기 남았다

여자배구대표팀 체코로 출국

목표는 그랑프리 2그룹 우승이다. 1그룹 승격을 노리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우승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홍성진 감독이 이끄는 여자배구 대표팀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17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2그룹 결선이 열리는 체코 오스트라바로 출국했다.

3주 동안 열린 예선 라운드에서 8승 1패, 1위로 결선 티켓을 따낸 한국은 29일 독일과 준결승을 치른다. 여기서 승리하면 30일에는 폴란드-체코전 승자와 결승이 기다린다. 여기서 우승을 거두면

한국 여자배구는 월드컵 1그룹으로 승격할 수 있다.

대표팀 주장 김명영(상하이)은 출국을 앞두고 “(1주차) 불가리아부터 (3주차) 수원까지 잘 마무리했다. 힘든 경기 우승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홍성진 감독이 이끄는 여자배구 대표팀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17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2그룹 결선이 열리는 체코 오스트라바로 출국했다.

김명영은 “독일과 폴란드, 체코 모두 강하다”며 “독일을 이기면 (결승에서) 폴란드와 할 것 같다. 폴란드도 우승 후보지만, 우리가 두 번 이겨서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도 예선은 다른 팀일 것”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연합뉴스